

도박의 접근성과 가용성이 도박문제에 미치는 영향

임숙희^{1*}, 박미숙², 김경진³

¹건양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²서울한영신학대학교 재활상담심리학과, ³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충북센터

The effect of gambling accessibility and availability on gambling problems

Sook Hee Im^{1*}, Mi Sook Park², Kyung Jin Kim³

¹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Konyang Cyber University, Daejeon, South Korea

²Department of Rehabilitation Counseling Psychology, Seoul Hanyoung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³Korea Center on Gambling Problem, Chungbuk, South Korea

요약 본 연구는 도박의 접근성과 가용성이 도박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시의 25개구 중 12개구에 위치한 24개소의 경마, 경륜 및 경정 장외발매소가 서울시민의 도박중독, 도박빈도 등의 도박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도박을 경험해 본 인터넷 패널 1,490명을 대상으로 거주지역을 포함한 인구통계학적 정보와 도박중독 및 도박빈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구에 거주하는 이용자와 그렇지 않은 이용자의 도박중독률과 도박빈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장외발매소가 위치하지 않은 지역에 비해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지역의 이용자의 도박중독과 도박행동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경마, 경륜 및 경정 등 경주류를 주로 이용하는 대상자만을 선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지역의 이용자의 도박행동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장외발매소의 접근성과 가용성 등이 도박중독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도박의 접근성과 가용성이 높을 시의 예방 및 개입 방안,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availability and accessibility on an individual's risk of developing a gambling problem. A total of 24 off-track betting facilities located in 12 districts of Seoul were examined in an effort to identify any association between their presence and citizens' gambling habits. Study participants included 1,490 online recruits residing in Seoul who participated in gambling activities in the 12 months prior to the study.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addiction rates and gambling frequency, a survey of demographics, gambling addictions, and gambling frequency divided the participants into two groups: those who resided in a district where off-track betting facilities were available, and those who resided elsewhere.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gambling frequency and addiction rates were significantly higher among participants residing in a district where off-track betting terminals are available. Additional analysis was performed with participants who mainly gambled on horse racing, with results similar to the previous analysis—significantly higher rates of gambling addiction and frequency were observed among participants residing in close proximity to off-track betting facilities.

Keywords : Gambling, Availability, Accessibility, Gambling Problem, Gambling Addiction

*Corresponding Author : Sook Hee Im(Konyang Cyber Univ.)

email: suki0070@kycu.ac.kr

Received November 17, 2020

Accepted March 5, 2021

Revised January 12, 2021

Published March 31, 2021

1. 서론

세계적으로 사행행위(이하 도박)의 역사는 뿌리가 깊고 시대에 따라 그 의미가 다양하게 변화해 왔다. 특정 문화에서 도박이 갖는 사회적 의미에 따라, 도박행동이 공격적으로 허용되기도 하고 금지되기도 하는 순환적인 역사를 보여 왔다. 20세기 초반 북미와 유럽 국가들에서 거의 모든 유형의 도박이 범죄시 되고 합법적인 도박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는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유럽 및 아시아의 몇 나라에서 도박은 공공정책과 관련을 맺으며 합법화되고 널리 확산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① 정부나 지자체가 추가적인 과세에 대한 유권자들의 저항 없이 새로운 세수원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사행산업을 이용하려 하였고, ② 관광업자(혹은 여가 산업 경영자)들이 도박을 높은 부가 가치를 지닌 상품으로 개발하려 하였으며, ③ 기술의 발달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도박(예, 인터넷이나 전자게임을 이용하는 형태)이 늘어난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

한국의 경우 사행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한국의 합법적 사행산업은 1922년에 경마의 도입을 시작으로 1947년 복권, 1994년 경륜, 2000년 카지노(강원랜드), 2001년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포토), 2002년 경정이 도입되어 6대 사행산업으로 발전하여 왔으며 그 규모가 계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01년 9.6조 원' → '13년 19.6조 원'). 특히 2000년대 초·중반에 서울시 내 도심지에 경마, 경륜, 경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장외매장*이 확산되어 사행산업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접근성이 높아졌다. 한국의 전국 경마 영업장 수는 30개소, 경륜은 21개소, 경정은 17개소이며 한국의 수도인 서울시의 경우 경마 10개소, 경륜 8개소, 경정 6개소로 많은 영업장들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매출액 중 장외발매소의 매출액과 입장객 수가 전체의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한편, 사행산업이 확장되고 접근성이 높아지면 주요 역기능에 해당하는 도박중독자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도박중독(gambling addiction)은 도박 행동에 대한 만성화된 자기-조절 실패로 인해 초래되는 생물심리적 증후군으로[3] 미국정신의학회의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DSM-5)[4]에서는 '도박장애(disordered gambling)

라는 공식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관련 문제를 정의하고 있다. DSM-5에서 도박중독은 내성, 금단, 조절실패, 학업 및 업무, 대인관계에서의 부정적 결과, 거짓말, 부채, 추격매수, 회피 목적의 도박 등의 9가지 기준 중에서 4가지 이상을 '지난 1년 동안'이나 '일생을 통해' 보이는 것으로 진단된다. 지난 1년 동안의 기준을 사용해서 특정 전집(Population distribution)에서 도박중독자가 차지하는 백분율을 나타낸 것을 1년 시점 유병률(prevalence)이라 한다. 한국사회의 도박중독 문제는 심각한 수준인데, 최근 CPGI(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를 활용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유병률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5.3%가 도박 중독 위험 집단으로 조사된 바 있다 [2]. 부적응적 도박 행동은 다양한 영역의 기능 손상과 삶의 질 저하, 높은 비율의 파산 및 이혼 등과 관련되고, 근로의식 감소와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사회질서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도박중독이 발생하는 이유나 발생을 촉진하는 요인에 대한 다양한 설명이 존재한다. 그중에서도 공중보건 접근(Public Health Approach)은 중독 연구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모델로서 사용자(host), 대상(agent), 환경(environment)의 세 요소가 상호작용하여 도박행동이나 도박의 결과를 결정한다고 본다 [3].

첫 번째 요소인 사용자(host)는 도박자로 볼 수 있다. 도박을 하는 사람은 도박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속성에서 서로 다르다. 유전적 취약성, 유아기나 아동기 외상 경험, 충동성, 위험 감수 경향, 생활 스트레스 경험, 사회적 고립 등이 도박에 빠지기 쉬운 도박자의 특성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요소인 대상(agent)은 도박게임이다. 도박게임은 여러 면에서 서로 다르다. 고스톱, 블랙 잭, 경마 등은 운과 함께 참여자의 지식이나 기술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슬롯머신, 빙고, 복권 등은 운에 의해서만 결과가 결정된다. 카지노 테이블게임이나 전자게임을 이용하는 도박은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고 결과도 즉각적으로 피드백되는 반면, 즉석 복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복권은 결과가 피드백되는 시간 간격이 느리다. 화투나 테이블게임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한데 반해, 슬롯머신처럼 혼자서 하는 게임도 있다. 경마나 경륜과 같은 참여자 사이의 경쟁방식이 있는가 하면 카지노 게임처럼 고객과 게임업체 사이의 경쟁방식도 있다. 내기에 거는 배팅 액수와 승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액수의 크기 또한 게임의 중요한 특성이다. 배팅과 상금의 액수가 크고 결과가 즉각적으로 피드백되며, 아슬아슬하게 승

* 장외발매소란 경마·경륜·경정 본장(경마 3개 지역, 경륜 및 경정 4개 지역)에서 경기를 관람하기 어려운 이용객에 대한 참여 기회 확대, 접근성 제고, 사업자의 수익성 개선 등을 위해 전국 각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여 운영되는 것을 의미한다.

리를 놓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게임 등이 중독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 번째 요소는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탐색하고자 하는 변인으로써 도박행동이 발생하는 물리 및 사회문화적 환경(environment)이다. 물리적인 환경 조건으로, 도박게임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과 기회가 얼마나 많은가를 의미하는 '가용성(availability)'을 들 수 있다. 가용성은 특정한 면적이나 인구수에 대해 얼마나 많은 도박 게임 시설이 있느냐를 의미한다. 다음은 가용성과 제도의 결합 결과로, 도박게임 시설에 접근하기가 얼마나 쉬운가를 뜻하는 '접근성(accessability)'이다. 또한 사회문화적인 측면과 관련성이 높은, 특정 문화에서 도박행동을 얼마나 합법적이고 적절한 행동으로 받아들이는가를 의미하는 '수용성(acceptability)'이다. 이 밖에도, 게임장의 현금지급기 유무, 알코올성 음료의 제공 여부, 외부와의 단절 정도, 오락시설의 존재 여부, 거울과 시계의 존재 여부 등과 대중매체를 통한 도박 광고나 도박 문제 경고 광고, 배팅 액수의 제한이나 출입금지 혹은 신분 확인 제도 등이 도박행동과 관련되는 중요한 환경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도박의 합법화는 도박중독자의 수를 증가시키며 [5,6] 도박장에 설치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도박중독 피해를 경험할 수 있다. 국외 선행연구 결과 지역 카지노 개장 후 도박 이용자 비율이 2배나 증가했고 [7], 도박 가용성과 도박행동 간에 높은 상관이 관찰된 바 있으며 [8,9], 새로운 형태의 도박에 대한 이용률과 합법화가 증가할수록 도박중독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11]. 미국과 캐나다의 연구들을 메타 분석한 Shaffer 등 [9]의 연구에서는 도박의 접근성이 증가하는 시점에 도박 관련 문제들의 유병률도 함께 증가됨을 밝히고 있다. NORC(The 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re [12])는 카지노 시설과의 거리가 근접할수록 도박유병률이 높음을 보고하였다. Preston, Shapiro 그리고 Kenne(2007)의 연구 [13]에서는 타 지역에 비해 도박장이 밀집해 있는 라스베이거스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라스베이거스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타 지역 거주 노인들보다 여가활동으로 도박을 하는 경우가 4배가 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내국인 대상 카지노는 폐광지역의 지역 쇠퇴에 대한 개선안으로 유치되어 건설사업 활성화, 고용 증가 등 경제적 활성화를 이끌어냈지만 오히려 카지노가 지역 주민의 심리,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국인 카지노가 유치된 강원 남부 폐광지역 주민들의 도박 참여 및 도박중독의 실태를 살

펴본 결과 카지노 인접 지역의 도박중독자 비율이 근접의 기타 지역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러 가지 도박행위에 관여하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4]. 이민규, 김교현, 김정남(2003)의 연구에서는 도박중독자 집단의 경우 정상 집단에 비해 도박의 접근 용이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5] 연미영(2006)의 연구에서는 사행업체가 위치한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미래의 도박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 또한 임숙희, 신현지, 이수정, 김교현(2017)의 연구에서는 연령별 거주 내 도박장의 인지 여부와 도박문제의 관계를 살펴봤는데 노년층의 경우 거주 내 도박장이 있다는 것을 인지할수록 도박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7]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8)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경마, 경륜, 경정 등 접근성이 더 높은 장외발매소를 운영하는 사행산업의 경우 본장에 비해 장외도박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도박중독유병률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예: 경마 본장 37.8%, 장외 44.6%, 경륜 본장 36.9%, 장외 44.6%, 경정 본장 34.4%, 장외 38.0%) [4]. 이러한 결과들은 도박 접근성 및 수용성이 도박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며 사행산업이 인접해 있는 지역의 시민들의 도박 문제 발생 가능성이 위험이 큼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처럼 공중보건 접근은 중독의 현상을 개인-환경-대상의 복합적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보다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개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18].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박중독을 다양한 체계와 환경, 대상에 대한 개입을 필요로 하는 사회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어떠한 환경요인의 영향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와 관련된 정책, 제도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도박 산업의 접근성과 수용성 정도가 지역 주민의 도박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는 도박 산업이 위치해 있는 지역 주민의 도박행동 및 도박중독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는 강원 및 과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이인혜(2005), 연미영(2006)의 연구에 불과하다 [14],[16].

특히 접근성이나 가용성이 높은 '경마, 경륜, 경정 장외매장'이 대부분 서울 도심지역에 위치해 있지만 이들 사행산업이 서울시민들의 도박문제를 포함한 안녕과 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조사 및 연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의 조사에서 서울시민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6.6%로 전체 국민의 유병률인 5.3%에 비해 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 대중매체들은 서울시

의 주거지역에 존재하는 사행산업의 위험성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 [19]. 또한 시민단체들은 도박장이 자녀의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장외발매소 중 6개소의 주변에는 초, 중, 고등학교가 550m 인접지역에 위치해 있어 학생들의 보건, 위생 및 학습 환경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 [19]. 이처럼 서울시민들은 사행산업에 더 가까이 노출되어 있어 더 쉽게 도박을 경험하게 되고 그만큼 중독의 위험성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서울시민들의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그 양상이나 수준이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접근성이나 가용성과 관련 있는지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정부의 도박중독 예방 및 개입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1년에 1회 이상 도박 경험이 있는 성인 인터넷 패널 중 설문에 동의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2014년 8월~9월의 1개월 동안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시 25개 지역구 중 각 구별 조사대상은 15~118명으로 각 구별 인구를 반영하여 확률표집으로 선별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1,400명이었다. 서울시 25개의 구 중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관악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북구, 영등포구, 용산구, 중로구, 중구, 중랑구의 12개의 구는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지역이며 강서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송파구, 양천구, 은평구의 13개의 구는 장외발매소가 없는 지역이다. 분석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2 측정도구

K-CPGI(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Korean version): 캐나다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도박중독 유형률을 조사하기 위해 Ferris와 Wynne(2001)이 개발한 문제도박 척도를 김아영 외(2011)가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20]. 이 척도는 공중건강접근의 폐해 모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타당화 연구에서 DSM-IV의 측정 결과와도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4점 척도(0~3점)의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 총점의 범위는 0~27점이며 총점을 기준으로 '비문제 도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rvey participants

| Variables | Criteria | No. of participants (%) |
|-------------------------|--|-------------------------|
| Gender | male | 838(56.2) |
| | female | 652(43.8) |
| Age | 20s | 357(24.0) |
| | 30s | 390(26.2) |
| | 40s | 318(21.3) |
| | 50s | 347(23.3) |
| | 60s and older | 78(5.2) |
| Educational level | elementary school(graduated) | 3(0.2) |
| | middle school(graduated) | 8(0.5) |
| | high school(graduated) | 242(16.2) |
| | college(enrolled) | 1065(71.5) |
| | graduate school(enrolled) and more | 172(11.5) |
| Marital status | never married | 598(40.1) |
| | married or live with a partner | 834(56.0) |
| | widowed | 14(0.9) |
| | divorced | 38(2.6) |
| | separated | 6(0.4) |
| Annual household income | Less than KRW 10 mil | 53(3.6) |
| | KRW 10 -KRW 20 mil | 83(5.6) |
| | KRW 20 -KRW 30 mil | 164(11.0) |
| | KRW 30 -KRW 40 mil | 266(17.9) |
| | KRW 40 -KRW 50 mil | 252(16.9) |
| | KRW 50 -KRW 60 mil | 226(15.2) |
| | KRW 60 -KRW 70 mil | 163(10.9) |
| | More than KRW 70 mil | 283(19.0) |
| Employment status | Full-time employment | 871(58.5) |
| | Part-time employment | 148(9.9) |
| | Temporary employment (part-time, etc.) | 111(7.4) |
| | Unemployed (including retirees) | 245(16.4) |
| | misc. | 115(7.7) |
| Occupation | Management/supervisory | 136(9.1) |
| | Professional/freelancer | 150(10.1) |
| | Office worker/skilled technician | 548(36.8) |
| | Sales/services | 109(7.3) |
| | Business owner | 94(6.3) |
| | technician/skilled laborer | 17(1.1) |
| | unskilled laborer | 21(1.4) |
| | farmer, fisherman, dairy farmer | 5(0.3) |
| | student | 155(10.4) |
| | stay-at-home mom | 182(12.2) |
| | unemployed | 45(3.0) |
| | misc. | 28(1.9) |

박(0점), '저위험 도박(1~2점)', '중위험 도박(3~7점)', '문제도박'(8점 이상)으로 분류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Cronbach's α 는 .841로 나타났다.

도박 행동: 국가에서 수행한 유형률 연구(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8)에 활용된 도박 행동 빈도 측정 문항을 사용하였다[4]. 총 13개의 도박[경마(본장/장외발매소), 경륜(본장/장외발매소), 경정(본장/장외발매소), 내

국민 카지노, 소싸움,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사설 사행활동, 친목목적게임, 오락형 온라인 게임 등] 행동에 대한 지난 1년 간의 이용 빈도를 0(경험 없음)에서 8(매일)점의 리커트식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2.3 분석방법

우선 서울시 25개의 구 중 장외발매소가 있는 12개의 구는 “1”로 코딩하고 장외발매소가 없는 13개의 구는 “0”으로 코딩하여 집단을 구분하였으며 거주 지역 내 장외발매소 유무에 따른 도박문제 수준별 비율을 분석하였다. 그다음으로 장외발매소 유무에 따라 도박문제 및 13개 도박 유형의 행동 빈도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독립 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장외발매소 유무가 도박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도박중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별(0:남성, 1:여성으로 코딩)과 연령을 통제 변수를 선정하고 장외발매소 유무(0,1로 코딩)와 함께 독립변수로 모두 투입하여 도박문제를 예측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참여자 중 지난 1년간 경마, 경륜 및 경정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도박 이용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분석을 반복하여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 처리는 SPSS 22.0을 활용하였다.

3. 결과

3.1 장외발매소 유무가 도박문제 및 도박행동에 미치는 영향

CPGI 척도를 통해 도박문제를 비문제,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군으로 구분하고 장외발매소 유무 지역에 따른 도박문제군과 비문제군의 비율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25개의 지역구 중 장외발매소가 있는 12개의 지역구를 ‘장외발매소 유’ 집단, 장외발매소가 없는 13개의 지역구를 ‘장외발매소 무’ 집단으로 구분하여 장외발매소 유무와 CPGI의 도박 수준에 대한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빈도 분석 결과 table 2에서 볼 수 있듯이 장외발매소가 위치하지 않은 지역의 비문제군은 390명으로 전체의 46.4%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역의 비문제군은 41.9%(262명)로 장외발매소가 위치하지 않은 지역보다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장외발매소가 위치하지 않은 지역의 저위험군은 131명으로 전체의 15.6%였으며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지역의 저위험군은 16.6%(104명)로 장외발매소가 없는 지역보다는

Table 2. Distribution of problem gamblers according to the availability of off course betting facility in the district of residence

Unit: respondents (%)

| Level of gambling problem | Off course betting facility: available | Off course betting facility: not available | Total |
|---------------------------|--|--|------------|
| None -problem gamblers | 262 (41.9) | 390 (46.4) | 652 (44.5) |
| Low risk gamblers | 104 (16.6) | 131 (15.6) | 235 (16.0) |
| Moderate risk gamblers | 114 (18.2) | 154 (18.3) | 268 (18.3) |
| High risk gamblers | 146 (23.3) | 165 (19.6) | 311 (21.2) |
| Total | 626 (100) | 840 (100) | 1466 (100) |

낮았다.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지역의 중위험군은 18.2%(114명)이었으며 장외발매소가 위치하지 않은 지역의 중위험군은 18.3%(154명)로 나타났다. 한편,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지역의 고위험군은 23.3%(146명)로 장외발매소가 위치하지 않은 고위험군의 19.6%(165명)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외발매소 유무에 따라 도박문제와 도박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독립 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도박행동은 경마·경륜·경정의 본장과 장외발매소에서 경주권을 구매한 빈도와 복권류, 스포츠 토토 구매 빈도, 카지노, 온라인 도박, 사설 불법 도박 이용 빈도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table 3과 같이 거주지역내 장외발매소 유무에 따라 도박문제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42, p<.05$). 경마(본장) 경주권 구매 빈도는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구가 그렇지 않은 구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17, p<.05$). 경마(장외) 경주권 구매 빈도 역시,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구가 그렇지 않은 구보다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t=2.66, p<.01$). 경륜(본장) 경주권 구매 빈도($t=3.04, p<.01$)와 경륜(장외) 경주권 구매 빈도($t=3.05, p<.01$)도 장외 발매소가 있는 구가 없는 구에 비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정(본장) 경주권 구매 빈도($t=-2.62, p<.01$)와 경정(장외) 경주권 구매 빈도($t=2.79, p<.01$) 역시 장외 발매소가 위치한 구가 그렇지 않은 구보다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즉, 모든 경주류에서 거주 지역 내 장외발매소가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더 빈번하게 도박을 이

Table 3. Gambling behaviors according to the availability of off course betting facility in the district of residence

| Category of gambling | Off course betting facility: available (n=626) | | Off course betting facility: not available (n=840) | | t |
|---|--|------|--|------|---------|
| | M | SD | M | SD | |
| CPGI | 4.03 | 5.41 | 3.35 | 4.73 | 2.42** |
| Purchasing horse racing tickets (stadium) | 1.51 | 1.33 | 1.37 | 1.04 | -2.17* |
| Horse racing tickets (an off course facility) | 1.45 | 1.33 | 1.29 | .99 | -2.66** |
| Bike racing tickets (stadium) | 1.42 | 1.31 | 1.24 | .88 | -3.04** |
| Bike racing tickets (off course facility) | 1.40 | 1.25 | 1.23 | .87 | -3.05** |
| Boat racing tickets (stadium) | 1.38 | 1.21 | 1.23 | .90 | -2.62** |
| Boat racing tickets (off course facility) | 1.38 | 1.22 | 1.22 | .91 | -2.79** |
| Buying lottery | 2.82 | 1.98 | 2.58 | 1.89 | 2.32* |
| Doing sports toto | 1.06 | 1.79 | .77 | 1.53 | 3.29** |
| Visiting casino | .41 | 1.19 | .25 | .83 | 2.96** |
| Online gambling | 2.02 | 2.37 | 1.95 | 2.35 | .52 |
| Private illegal gambling | .46 | 1.34 | .27 | .96 | 3.20** |

*p<.05, **p<.01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복권류($t=2.32, p<.05$), 스포츠 토토($t=3.29, p<.01$), 카지노($t=2.96, p<.01$), 사설 불법 도박($t=3.29, p<.01$)에서도 거주 지역 내 장외발매소가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유의하게 더 많이 도박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거주지역에 장외발매소가 위치해 있는지 여부가 시민의 도박문제를 예측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4).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도박중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외 변수들을 파악한 후, 선행연구들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보고된 변수 중 성별, 연령 변수와 함께 장외발매소 지역유무 변수를 모두 투입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분석 결과 연령이 도박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Table 4. The effect of age, gender, and availability of off course betting facility on a gambling problem

| Dependent variable | Independent variable | R ² | F | β | t |
|-------------------------------|---|----------------|--------|-------|----------|
| Gambling problem (CPGI score) | age | .043 | 21.99* | .041 | 1.58 |
| | gender | | | -.192 | -7.50*** |
| | availability of off course betting facility | | | .069 | 2.68** |

p<.01, *p<.001

않았으나($\beta=.041, p=ns$) 성별($\beta=-.192, p<.001$)과 장외발매소 유무가($\beta=.069, p<.01$) 도박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였다. 이는 성별과 연령이 도박문제에 미치는 효과를 통제하고도 장외발매소의 유무가 도박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며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며 남성일 때 도박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2 경륜, 경정, 경마 이용 서울시민 대상 장외발매소 유무에 따른 도박문제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민 중 경륜, 경정 및 경마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326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의 지역구에 장외발매소가 위치해 있는지 여부가 서울시의 도박문제를 예측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장외발매소 유무와 CPGI의 도박 수준에 대한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경마, 경륜 및 경정 등 경주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지역별 도박 문제수준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table 5와 같이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지역의 고위험군은 88명으로 전체의 58.3%로 가장 많았으며 장외발매소가 없는 지역의 고위험군은 49.7%(85명)으로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지역의 고위험군보다는 다소 비율이 낮았다. 비문제군은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지역의 비문제군이 19.2%(29명)으로 장외발매소가 위치하지 않은 지역에 있는 비문제군 14.6%(25명)보다 비율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지역의 저위험군은 11명(7.3%)으로 장외발매소가 위치하지 않은 지역의 저위험군 25명(14.6%)보다 낮았으며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지역의 중위험군은 23명(15.2%)이었으나 장외발매소가 위치하지 않은 지역의 중위험군은 36명(21.1%)으로 장외발매소가 위치하지 않은 지역의 중위험군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Table 5. The effect of availability of off course betting facility on the gambling problem among users of horse racing, bike racing, and boat racing in Seoul

| Level of gambling problem | Off course betting facility: available | Off course betting facility: not available | Total |
|---------------------------|--|--|------------|
| None -problem gamblers | 29 (19.2) | 25 (14.6) | 54 (16.8) |
| Low risk gamblers | 11 (7.3) | 25 (14.6) | 36 (11.2) |
| Moderate risk gamblers | 23 (15.2) | 36 (21.1) | 59 (18.3) |
| High risk gamblers | 88 (58.3) | 85 (49.7) | 173 (53.7) |
| Total | 151 (100) | 171 (100) | 322 (100) |

경주류 이용객을 대상으로 장외발매소 유무에 따라 도박문제와 도박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독립 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도박행동은 경마·경륜·경정의 본장과 장외발매소에서 경주권을 구매한 빈도와 복권류, 스포츠 토토 구매 빈도, 카지노, 온라인 도박, 사설 불법 도박 이용 빈도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table 6과 같이 거주지역 내 장외발매소 유무에 따라 도박문제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1.93, p=ns$). 그러나 경마 장외 경주권 구매($t=2.19, p<.05$), 경륜 본장 경주권 구매($t=2.72, p<.01$), 경정 본장 경주권 구매($t=2.19, p<.05$), 경정 장외 경주권 구매($t=2.40, p<.05$)에서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구가 그렇지 않은 구보다 유의하게 경주류 도박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카지노 ($t=2.61, p<.01$), 사설 불법 도박($t=3.07, p<.01$)에서도 거주 지역 내 장외발매소가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유의하게 더 많이 도박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 연령 변수와 함께 장외발매소 지역 유무 변수를 모두 투입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7과 같이 연령이 도박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으나($\beta=.086, p=.ns$) 성별($\beta=-.140, p<.05$)과 장외발매소 유무($\beta=.111, p<.05$)가 도박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였다. 이는 성별과 연령이 도박문제에 미치는 효과를 통제하고도 장외발매소의 유무가 도박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며 남성일수록 그리고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지역일수록 도박문제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Table 6. Gambling behaviors according to the availability of off course betting facility among users of horse racing, bike racing, and boat racing in Seoul

| Category of gambling | Off course betting facility: available (<i>n</i> =155) | | Off course betting facility: not available (<i>n</i> =171) | | <i>t</i> |
|---|---|-----------|---|-----------|----------|
| | <i>M</i> | <i>SD</i> | <i>M</i> | <i>SD</i> | |
| CPGI | 8.72 | 6.64 | 7.39 | 5.83 | 1.93 |
| Purchasing horse racing tickets (stadium) | 2.14 | 2.02 | 1.83 | 1.61 | 1.51 |
| Horse racing tickets (an off course facility) | 1.89 | 2.20 | 1.40 | 1.79 | 2.19* |
| Bike racing tickets (stadium) | 1.76 | 2.21 | 1.17 | 1.64 | 2.72** |
| Bike racing tickets (off course facility) | 1.68 | 2.11 | 1.11 | 1.66 | 2.72** |
| Boat racing tickets (stadium) | 1.58 | 2.09 | 1.11 | 1.72 | 2.19* |
| Boat racing tickets (off course facility) | 1.61 | 2.11 | 1.09 | 1.77 | 2.40* |
| Buying lottery | 3.80 | 1.80 | 3.67 | 1.73 | .65 |
| Doing sports toto | 2.71 | 2.15 | 2.38 | 2.05 | 1.41 |
| Visiting casino | 1.49 | 2.04 | .97 | 1.57 | 2.61** |
| Online gambling | 3.49 | 2.38 | 3.38 | 2.50 | .40 |
| Private illegal gambling | 1.64 | 2.15 | .98 | 1.68 | 3.07** |

* $p<.05$, ** $p<.01$

Table 7. The effect of age, gender, and availability of off course betting facility on the gambling problem among users of horse racing, bike racing, and boat racing

| Dependent variable | Independent variable | <i>R</i> ² | <i>F</i> | β | <i>t</i> |
|-------------------------------|---|-----------------------|----------|---------|----------|
| Gambling problem (CPGI score) | age | .040 | 4.467** | .086 | 1.57 |
| | gender | | | -.140 | -2.55* |
| | availability of off course betting facility | | | .111 | 2.02* |

* $p<.05$, ** $p<.01$, *** $p<.001$

4. 논의

본 연구는 서울시 내 경주류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주민의 도박행동 및 도박중독을 살펴봄으로써 도박시설의 접근성과 가용성이 서울시민의 도박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서울시 내의 장외발매소가 설치된 구와 그렇지 않은 구의 도박중독률과 도박 빈도를 비교한 결과 장외발매소가 설치된 구의 도박중독률과 도박 빈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장외발매소를 운영하고 있는 경주류 뿐만 아니라 복권류, 스포츠 토토, 카지노, 사설 도박 등의 전반적인 도박에서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도박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도박 전반에 대한 경험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는 도박 가용성과 도박행동 간에 높은 관계가 있음을 밝힌 연구 [8,21]와 도박시설 개장 후 도박 이용자 비율이 증가함을 보고한 연구들 [7]과 유사한 결과이다. 특히 추가적인 분석에서 서울시의 도박중독률은 다른 도시와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었으며(전국 17개 시도 중 2위) 서울시의 CPGI 평균 점수는 3.63($SD= 5.04$)으로 중위험도박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시는 한국 내의 여러 시도 중에서도 가장 많은 장외발매소가 설치되어 있어 그 위험성이 더 높다 볼 수 있다.

또한 경마, 경륜 및 경정만을 이용하는 시민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경주류 도박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집단의 경우 본장 및 장외 도박이용 빈도에서 도박장과 근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 더 높은 행동 빈도를 나타냈으나 도박문제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미 도박을 빈번하게 이용하는 집단에서는 도박 접근성이 일반 집단에 비해 도박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즉, 도박 접근성은 이미 도박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도박 이용자들보다 일반인들에게 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장외발매소의 근접성에 대한 보호 정책이 일부 도박 이용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폭넓게 적용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종합해 볼 때 장외발매소의 근접성 및 이용 용이성 등이 도박중독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이며 따라서 서울시민의 책임 있는 사행산업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무엇보다 서울시 내에 위치한 합법화된 사행사업장(특히 경마, 경륜, 경정 장외매장)으로부터 발생하는 피해에 근본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사행산업의 집중, 고립화 원칙'에 따라 사행사업장을 주민들이 거주하지 않

거나 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울시 외곽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되겠으나 현재로서는 법적 장치 미흡 등으로 인해 실현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지속되고 있는 문제에 대처하고 앞으로 발생할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사행산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사행산업체를 총괄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규제권을 강화하고 이와 함께 사행산업이 신규 진입 및 이전·변경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전 협의할 수 있는 제도나 사행산업 영향평가제도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사행산업체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폐해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한국에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규제나 사행산업 영향 평가 없이 학교환경위생 구역과 인접한 지역에 장외발매소가 이전 설치된 사례가 있었는데 지역주민들은 자녀들의 교육과 주거환경 및 교통 등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며 이전 및 확장을 반대하고 있다 [22]. 따라서 학교환경위생 절대 정화구역 확대 등 제도적 규제를 마련하고 사행산업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등 적절한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사행산업과 접점에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연수 교육 등을 통해 사행산업에 대한 위험 인식을 제고하고 이와 관련한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증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도박 피해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특히, 주거지역 인근에 장외매장이 있는 지역주민 삶의 질과 도박중독률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사행산업장과 연결시켜 검토함으로써 지역사회 폐해를 미리 예측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전담 부서 운영이 필요하며 이 부서는 사행산업의 이전 및 설치 계획과 행정처리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그에 따른 대응전략을 수립하도록 한다. 또한 사행산업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사행산업으로 인한 영향을 파악하도록 연 1회의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이 결과를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사행산업 취약계층의 잠재적 폐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도박에 대한 접근성과 수용성이 증가하면서 도박중독 등의 직접 폐해의 위험도 증가한다. 이와 같은 위험성이 증가하면 도박중독 문제에 취약한 집단에게서 우선적으로 폐해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혹은 문제 발생 초기 단계에 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행산업 취

약집단은 장외매장 인근 거주 주민과 인터넷 및 스마트 미디어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아동 및 청소년, 여가 수단으로써 도박을 이용하는 노인 등이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도박 문제 위험에 대한 정기 점검과 함께 도박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산재해 있고, 쉽게 중독될 수 있는지와 도박 부작용의 심각성 등을 중독 사례를 활용, 교육함으로써 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심각한 도박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도박중독 예방 담당부서에서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협력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셋째, 도박문제에 대한 유관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 도박으로 인한 불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사회안정망이나 사법기관으로 이전되는 사례에서 이를 관리하기 위해 사법기관 및 교정기관, 보건소, 사회복지기관 등의 공무원이 도박문제 위험 인식을 제고하고 대응 기술을 증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도박으로 인한 불법적 문제를 가진 대상자들을 자주 접촉하게 되는 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도박중독의 원인과 증상, 위험성, 연계 기관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서울시의 장외발매소의 물리적 접근성과 도박문제의 관련성을 알아본 연구로 경험적 데이터를 통해 도박의 접근성과 가용성이 도박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다. 그러나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먼저 물리적 접근성 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사회적 변인을 고려하지 못했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하여 확장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 내에서만 장외발매소의 근접성과 도박문제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서울시는 수도로서 한국을 대표하는 특성이 있지만 그 외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지역 간의 차이와 특성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한편,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통한 도박의 경험 역시 중요한 물리적 근접성의 변인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한 도박 경험이 도박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References

- [1] Korn, D. A., & Shaffer, H. J. "Gambling and the health of the public: Adopting a public health perspective". *Journal of gambling studies*, 15(4), 289-365. 1999. DOI: <https://doi.org/10.1023/A:1023005115932>
- [2]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Current statistics on gambling participation in South Korea. Report,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Seoul, 2018.
- [3] Kim, K.H. "Self-regulation model of gambling behavior: The extension of common-sense model".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Health*, 11(2), 243-274, 2006.
- [4]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DSM-5). Washington, DC: APA. 2013.
- [5] Goodman, R. The luck business: The devastating consequences and broken promises of America's gambling explosion. Free Press. 1995.
- [6] Lorenz, V. C., Politzer, R. M., & Yaffee, R. A. Final report on the task force on gambling addiction in Maryland. Baltimore: 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 1990.
- [7] Ladouceur, R., Jacques, C., Ferland, F., & Giroux, I. "Prevalence of problem gambling: a replication study 7 years later" *The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44(8), 802-804. 1990. DOI: <https://doi.org/10.1177/070674379904400807>
- [8] Sibbald, B. "Casinos bring ill fortune, psychiatrists warn"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 164(3), 388. 2001.
- [9] Shaffer, H. J., Hall, M. N., & Vander Bilt, J. "Estimating the prevalence of disordered gambling behavior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a research synthesi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9(9), 1369-1376. 1990. DOI: <https://doi.org/10.2105/ajph.89.9.1369>
- [10] Volberg, R.A. Gambling and problem gambling in Iowa: A replication study. Report to the Iowa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Roaring Springs, PA.: Gemini Research. 1995.
- [11] Volberg, R. A. "Prevalence studies of problem gambling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gambling studies*, 12(2), 111-128. 1996. DOI: <https://doi.org/10.1007/bf01539169>
- [12] 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 Gambling impact and behavior study: Report to the national gambling impact study commission. Chicago: 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 1999.
- [13] Preston, F.W., Shapiro, P. D., & Keeene, J. R. "Successful aging and gambling: Predictors of gambling risk among older adults in Las Vega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1(1), 102-121. 2007. DOI:<https://doi.org/10.1177/0002764207304850>
- [14] Yi, I. H. "Gambling behavior, gambling-related problem, and the satisfaction with life among the residents who live in the location of Casino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Culture and Social Issues*,11(4):

67-82, 2005.

- [15] Rhee, M. K, Kim, K. H, Kim, C. N. "Prevalence estimates, demographics and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of pathological gamblers: focusing on comparing two communities in Korea." *Journal of Psychology: Health* 8(2): 399-414, 2003
- [16] Yeon, M. Y. "The Influences of Impulsivity, Family' Gambling Activity and the Distance from Adolescence's home to the Gambling Facilities Area on adolescents' gambling activity, gambling belief and gambling motivation in the future."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2(1), 1-14. 2006.
- [17] Im, S.H, Shin, H.J, Lee, S.J, Kim, K.H. "Effects of Gambling Accessibility and Life Meanings on Gambling Problems: Focused on Gender and Age".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8(3): 19-31, 2017.
DOI: <https://doi.org/10.17315/kihp.2017.22.4.015>
- [18] Rogers, J. "Problem Gambling: A Suitable Case for Social Work?" *Practice: Social Work in Action*, 25(1), 41-60. 2013.
DOI: <https://doi.org/10.1080/09503153.2013.775234>
- [19] Seoul. A study to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the gambling industry in Seoul and to prepare measures. 2014.
- [20] Kim, A.Y, Cha, J.E, Kwon, S.J & Lee, S.M.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Korean Version of CPGL."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30(4): 1011-1038, 2011.
- [21] Shaffer, H. J., & Korn, D. A. "Gambling and related mental disorders: A public health analysis". *Annual review of public health*, 23(1), 171-212. 2002. DOI: <https://doi.org/10.1146/annurev.publhealth.23.100901.140532>
- [22] Choi JW (2013) *Gookmin Ilbo*, 08 July, 2013. Available From: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7350973&code=61122011&sid1=reg> (accessed SEP, 20, 2020)

임 숙 희(Sook Hee Im)

[정회원]



- 2006년 8월 : 충남대학교 사회과 학대 심리학과(문학 석사)
- 2012년 2월 : 충남대학교 사회과 학대 심리학과(문학 박사)
- 2012년 3월 ~ 2015년 8월 : 충남대학교 중독행동연구소 선임연구원,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빙교수
- 2015년 8월 ~ 현재 : 건양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도박중독, 스마트폰중독, 건강심리, 임상심리

박 미 숙(Mi Sook Park)

[정회원]



- 2006년 2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문학석사)
- 2012년 8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문학박사)
- 2020년 8월 : 평택대학교 대학원 상담학과(상담학석사)

- 2014년 7월 ~ 2016년 2월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 교실 박사후 연구원
- 2016년 3월 ~ 현재 : 서울한영대학교 재활상담심리학과 교수

<관심분야>

알코올 중독자의 뇌 기능, 알코올 중독자 및 가족상담

김 경 진(Kyoung Jin Kim)

[정회원]



- 2012년 2월 : 충남대학교 사회과 학대 심리학과(문학 석사)
- 2020년 2월 : 충남대학교 사회과 학대 심리학과(문학 박사)
- 2017년 3월 ~ 2020년 7월 : 건양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외래 교수

- 2017년 9월 ~ 현재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세종충북센터 센터장

<관심분야>

행위중독, 심리치료